

#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CATI & ARS

제77차 CATI조사

제92차 ARS조사

94차

# 여론조사꽃

## 정례여론조사

### 보고서

CATI &amp;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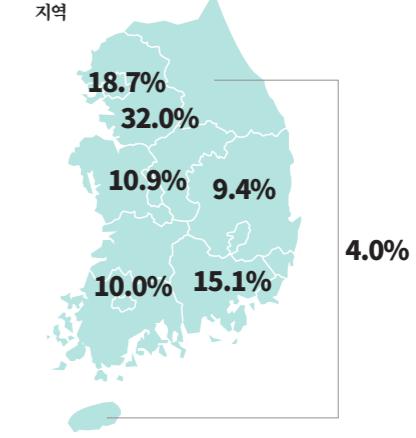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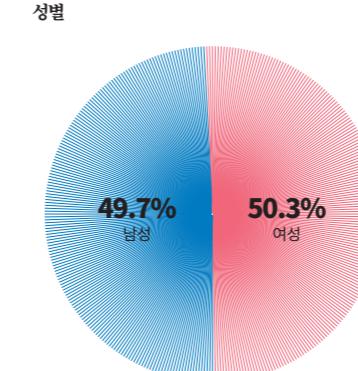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CATI		ARS	
	진보	중도	보수	잘모름
22.9	41.0	25.8	10.3	
24.9	42.1	23.9	9.2	

## CATI 조사개요

모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3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29,997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7)제공 무선기기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6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12.4% [총 통화시도 8,077명]
조사기간	2024년 7월 26일 ~ 7월 27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전체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성	498	49.7	494	49.3
	여성	505	50.3	509	50.7
연령	18~29세	160	16.0	158	15.8
	30대	149	14.9	149	14.9
	40대	181	18.0	177	17.6
	50대	199	19.8	197	19.6
	60대	173	17.2	175	17.4
	70세이상	141	14.1	147	14.7
지역	서울	188	18.7	188	18.7
	인천·경기	321	32.0	321	32.0
	대전·세종·충청	109	10.9	107	10.7
	광주·전라	100	10.0	98	9.8
	대구·경북	94	9.4	98	9.8
	부산·울산·경남	151	15.1	149	14.9
	강원·제주	40	4.0	42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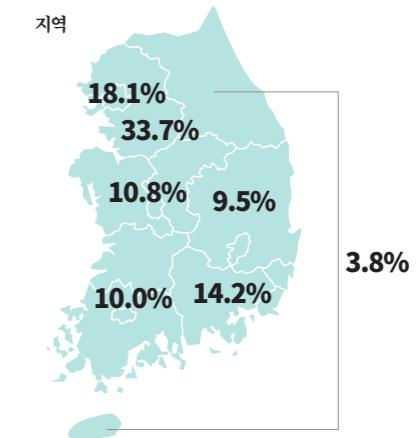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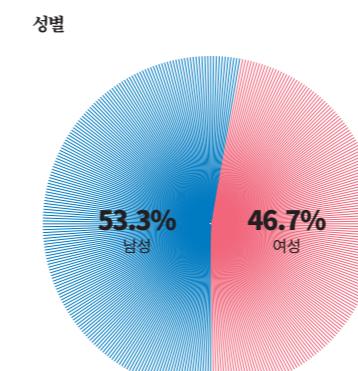


## ARS 조사개요

모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1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6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림가중)
응답률	2.3% [총 통화시도 43,310명]
조사기간	2024년 7월 26일 ~ 7월 27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전체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성	534	53.3	494	49.4
	여성	467	46.7	507	50.6
연령	18~29세	108	10.8	158	15.8
	30대	125	12.5	149	14.9
	40대	200	20.0	177	17.7
	50대	217	21.7	197	19.7
	60대	193	19.3	173	17.3
	70세이상	158	15.8	147	14.7
지역	서울	181	18.1	188	18.8
	인천·경기	337	33.7	320	32.0
	대전·세종·충청	108	10.8	107	10.7
	광주·전라	100	10.0	98	9.8
	대구·경북	95	9.5	97	9.7
	부산·울산·경남	142	14.2	149	14.9
	강원·제주	38	3.8	42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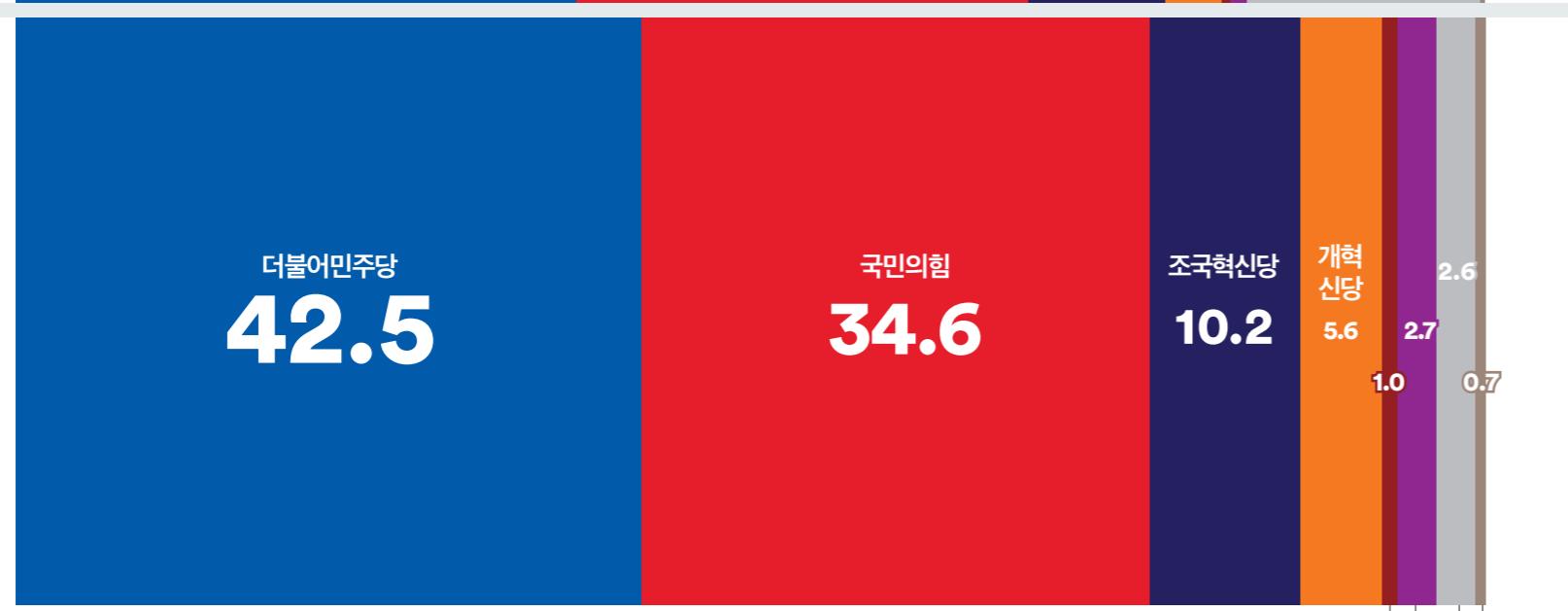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전보당	29.0	40.0	51.2	41.4	37.2	27.4
개혁신당	18.6	18.1	18.8	28.4	44.3	57.6
그외 다른정당	6.7	7.2	13.2	15.6	7.5	5.9
잘 모름	39.3	24.5	11.2	10.7	6.9	5.5

ARS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전보당	36.8	49.0	57.1	48.0	35.8	25.0
개혁신당	29.2	22.9	18.2	32.0	48.6	59.1
그외 다른정당	16.4	11.9	15.1	11.2	10.6	7.2
잘 모름	5.8	8.0	1.0	1.2	1.0	1.0

76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5%p 하락, '국민의힘' 0.6%p 하락, '조국혁신당' 1.7%p 하락

91차 ARS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3.4%p 상승, '국민의힘' 5.6%p 하락, '조국혁신당' 1.6%p 하락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간 격차는 CATI 7.5%p, ARS 7.9%p(지난주: CATI 7.4%p, ARS -1.1%p<sup>국립 우세</sup>)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격차는 CATI 16.8%p, ARS 18.1%p(지난주: CATI 18.4%p, ARS 10.7%p)

진보당  
지지정당 없음  
그 외 다른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 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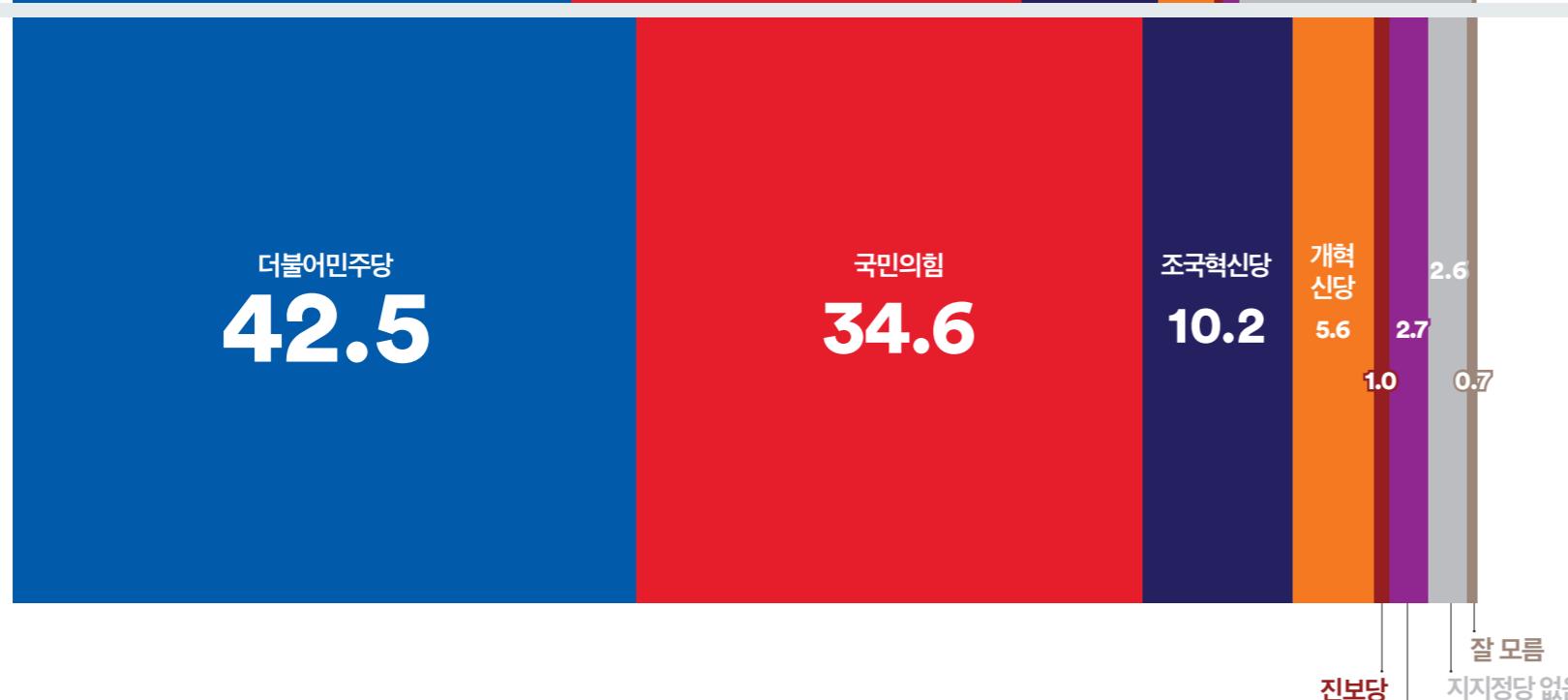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권역	서울	31.0	36.5	11.3	7.4	20.0	13.8
인천·경기	43.3		23.1	7.4		20.0	
대전충청·세종	43.2		31.3	7.9		13.1	
광주·전라	59.8		7.2	14.3		14.4	
대구·경북	22.6		52.1			17.1	
부산·울산·경남	28.1		39.7	10.0	5.6	14.6	
강원·제주	40.0		33.8	16.7		7.1	
성별							
남성	38.4		29.3	9.2	6.1	16.0	
여성	37.9		32.0	9.3		15.9	

ARS



권역	서울	47.1	32.9	8.9	7.6	2.1
인천·경기	47.2		30.8	10.2	2.0	2.1
대전충청·세종	35.8		35.1	13.0	6.0	8.4
광주·전라	59.1		12.6	14.6	5.6	2.1
대구·경북	25.9		52.8		5.9	7.8
부산·울산·경남	32.9		46.6		8.6	5.8
강원·제주	36.8		37.0		14.8	6.6
성별						
남성	41.7		31.6	11.5	8.9	2.1
여성	43.3		37.6	9.0	2.1	2.1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경인권과 호남권에서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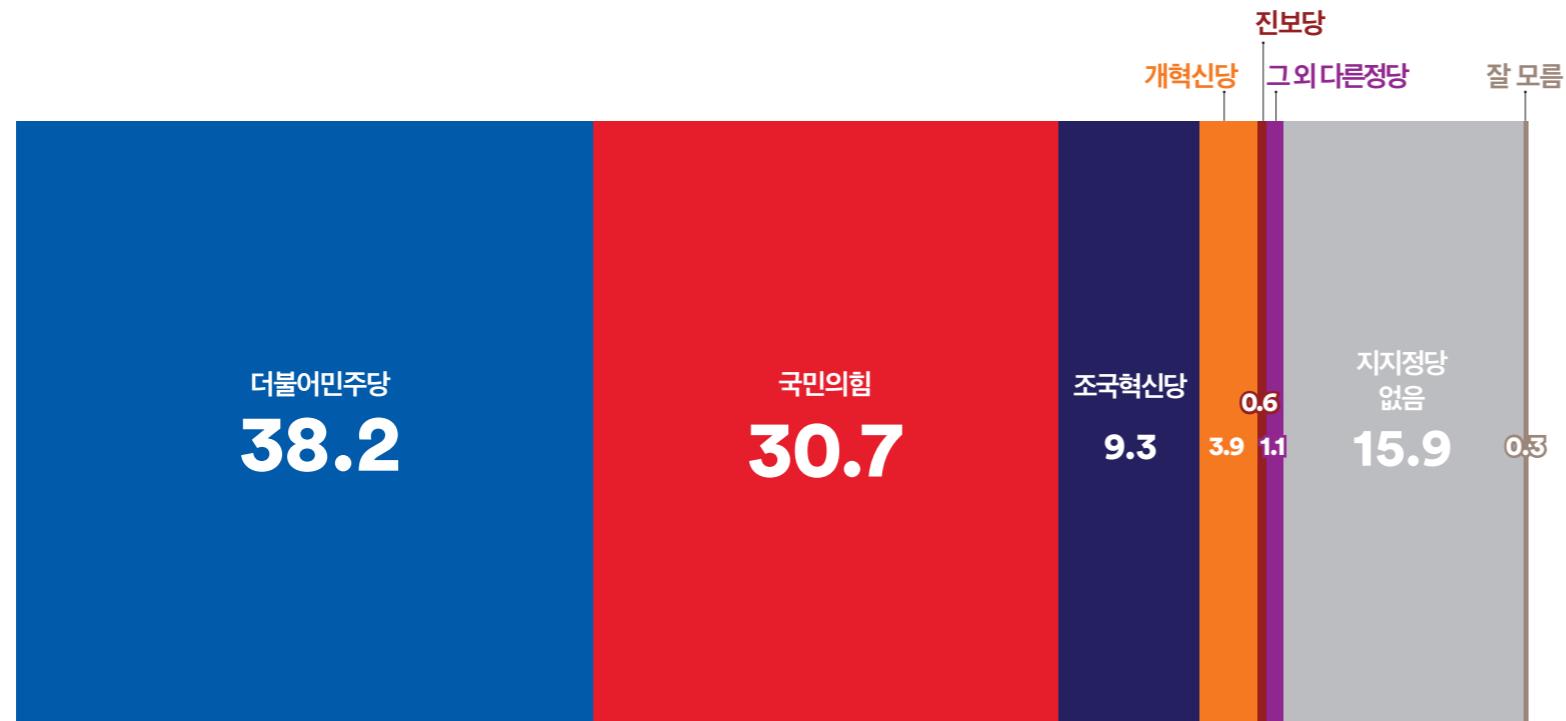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경인권 및 호남권에서 우세(CATI조사의 충청권, ARS조사의 서울권 포함)

남녀 모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대비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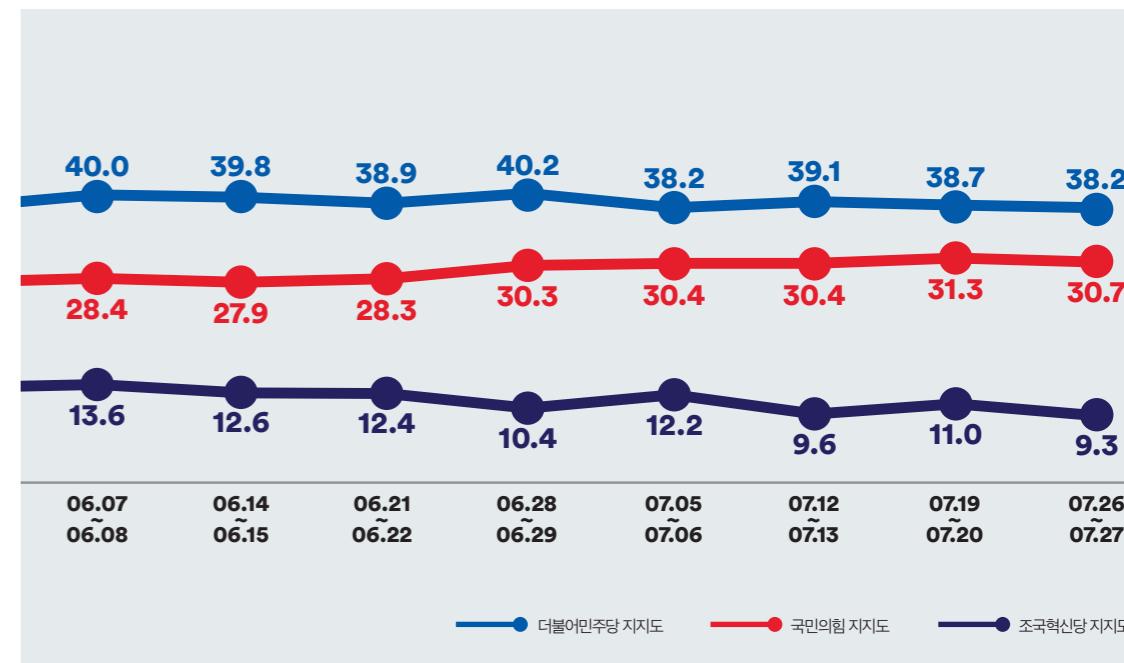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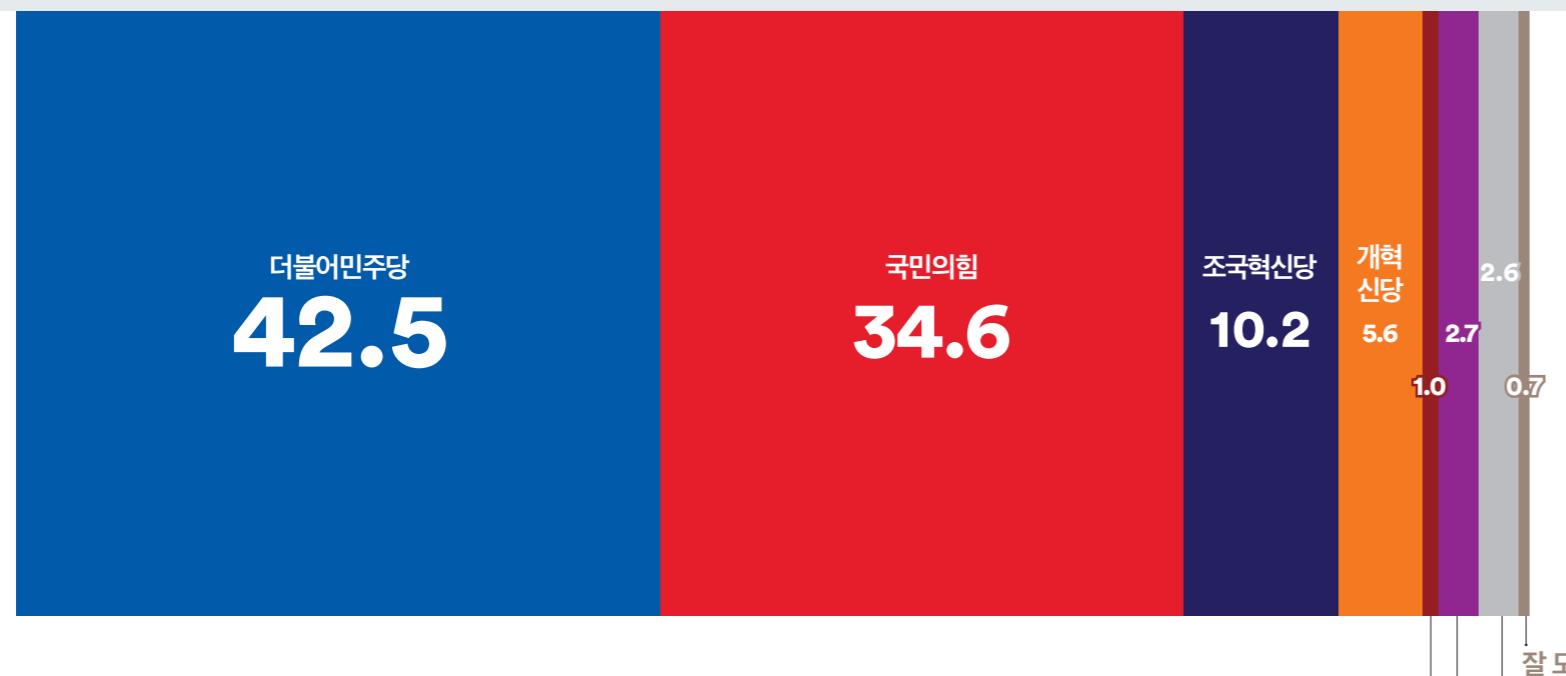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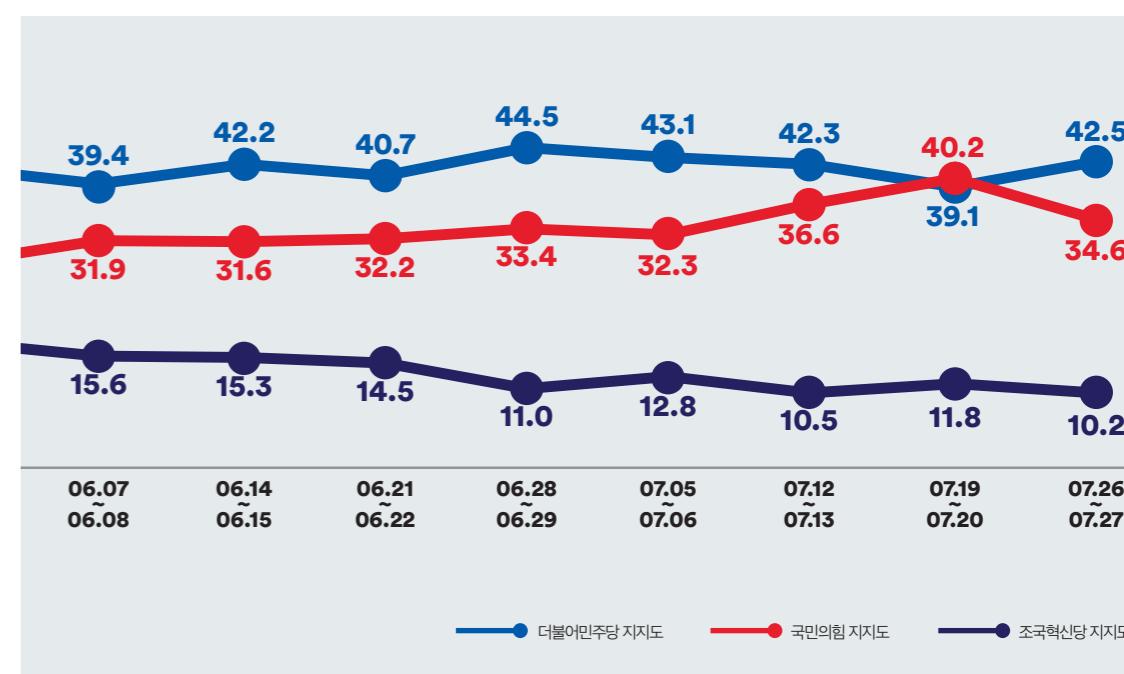
주차별  
정당지지도



ARS



주차별  
정당지지도



CATI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0.6%, '국민의힘' 22.0%, '조국혁신당' 12.1%의 지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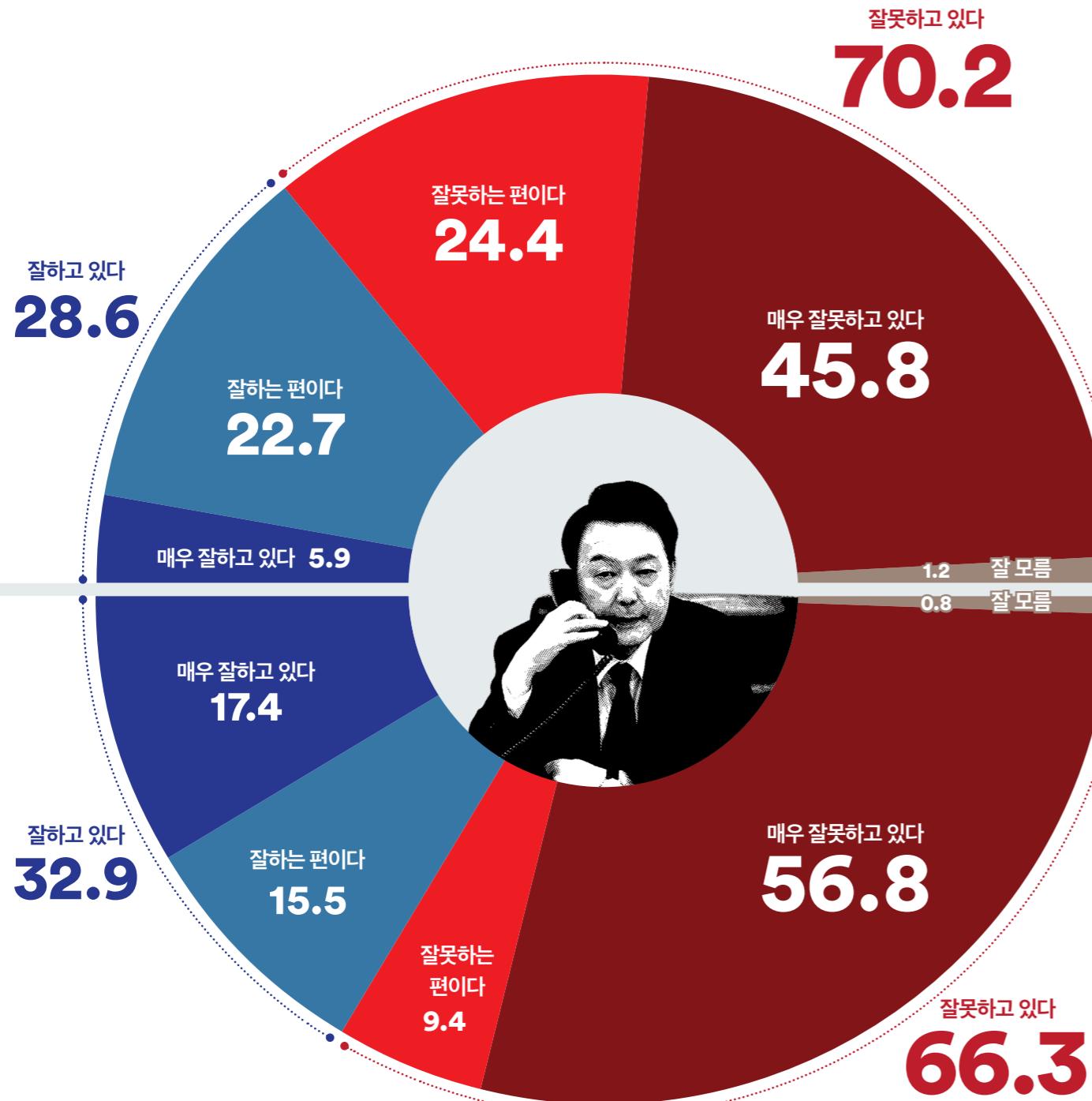
ARS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2.1%, '국민의힘' 30.2%, '조국혁신당' 13.0%의 지지율을 보임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CATI 30.7%p(76차: 30.0%p), ARS 24.9%p(91차: 10.4%p)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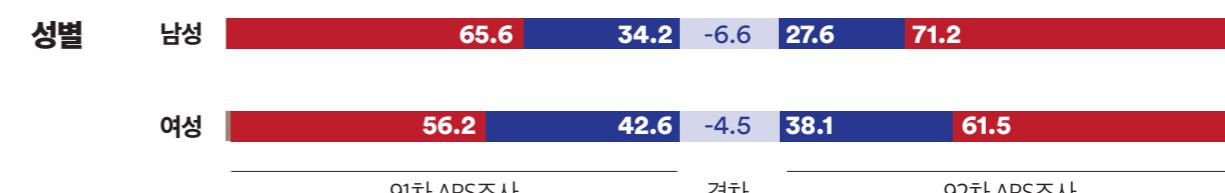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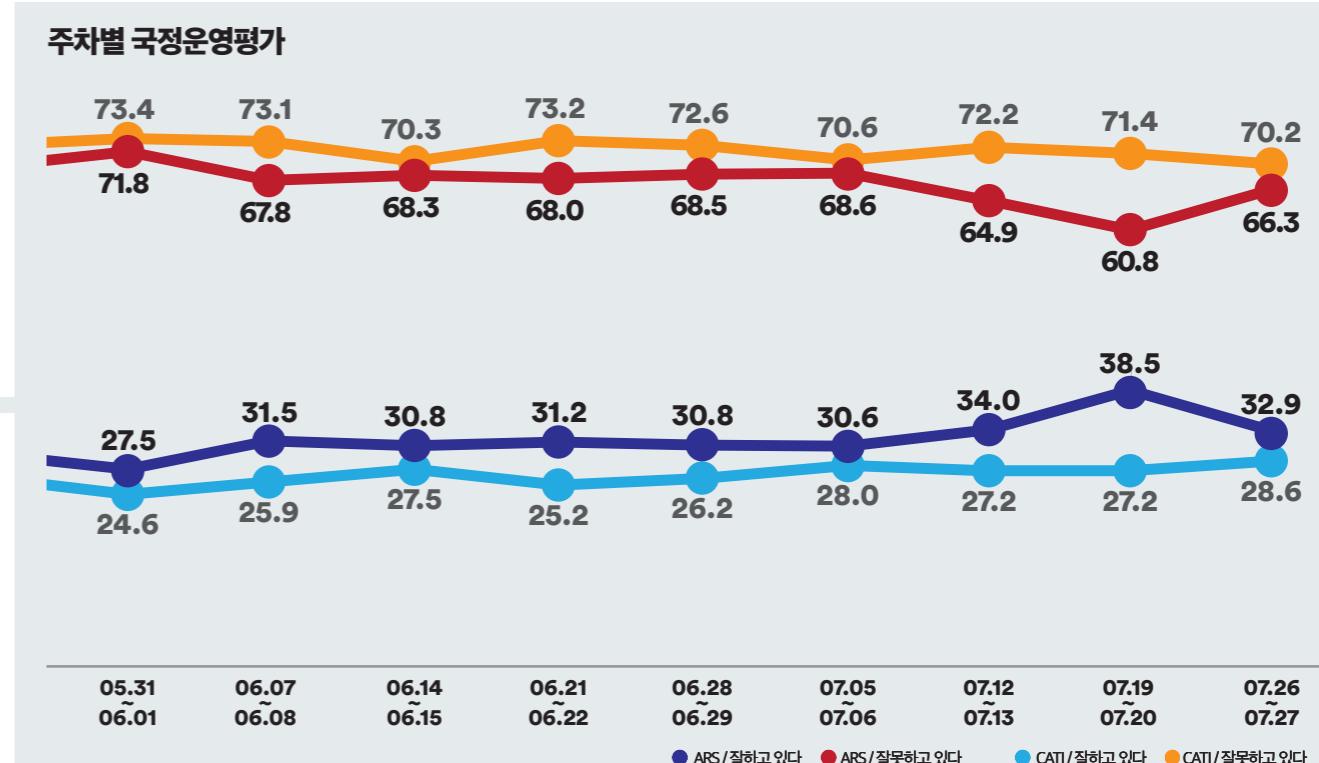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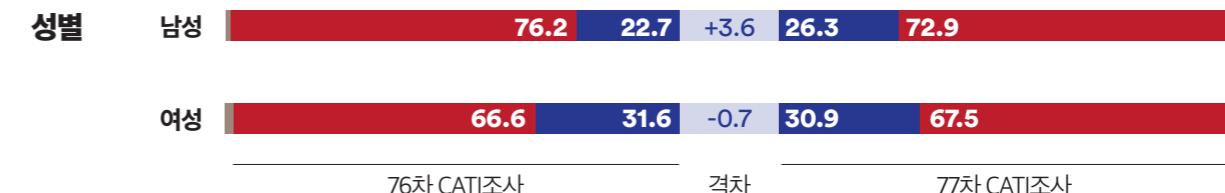


지난 76차 CATI조사 대비 '긍정' 평가 1.4%p 상승, '부정' 평가 1.2%p 하락(격차 41.6%p)

지난 91차 ARS조사 대비 '긍정' 평가 5.6%p 하락, '부정' 평가 5.5%p 상승(격차 33.4%p)

CATI조사의 TK를 제외한 두 조사의 모든 권역에서 '부정' 평가 앞서고, 남·녀 모두, 50대이하 연령층(ARS 60대 포함)에서 '부정' 평가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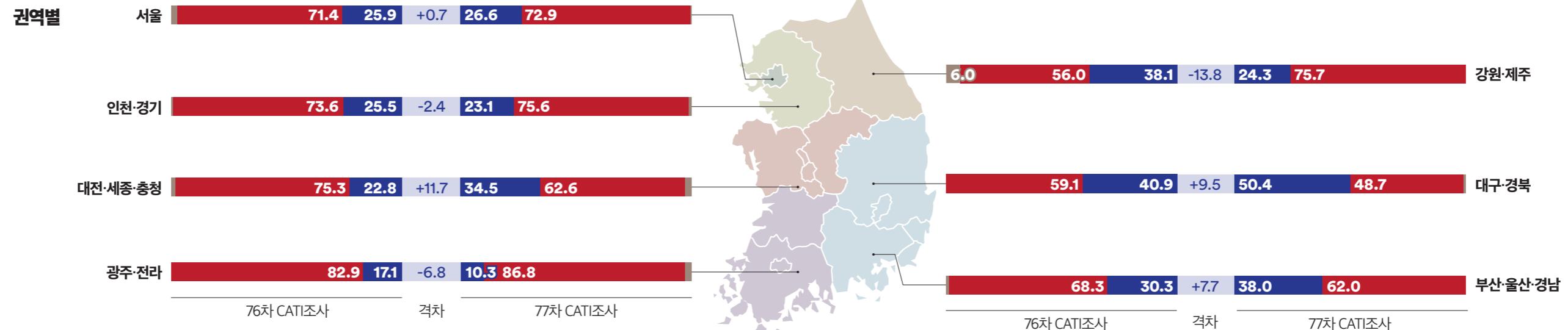
중도층의 평가 간 격차는 CATI 58.3%p(지난 조사: 58.5%p), ARS 42.8%p(지난 조사: 25.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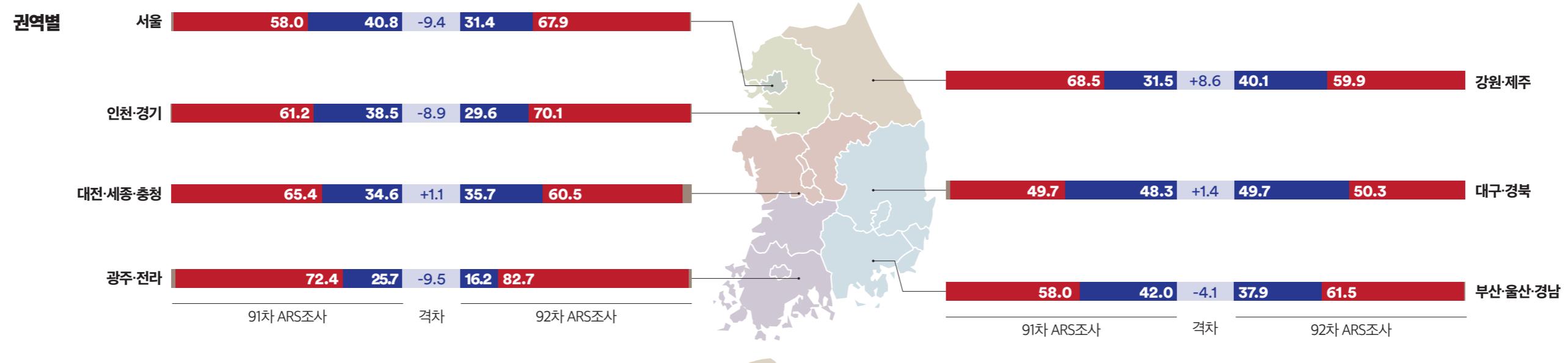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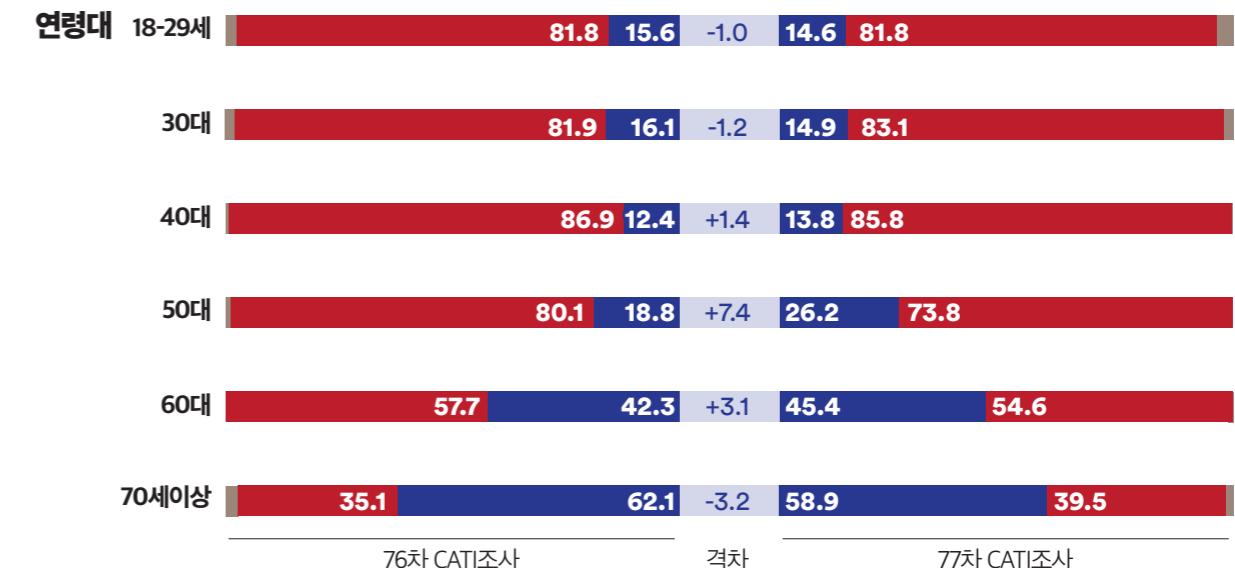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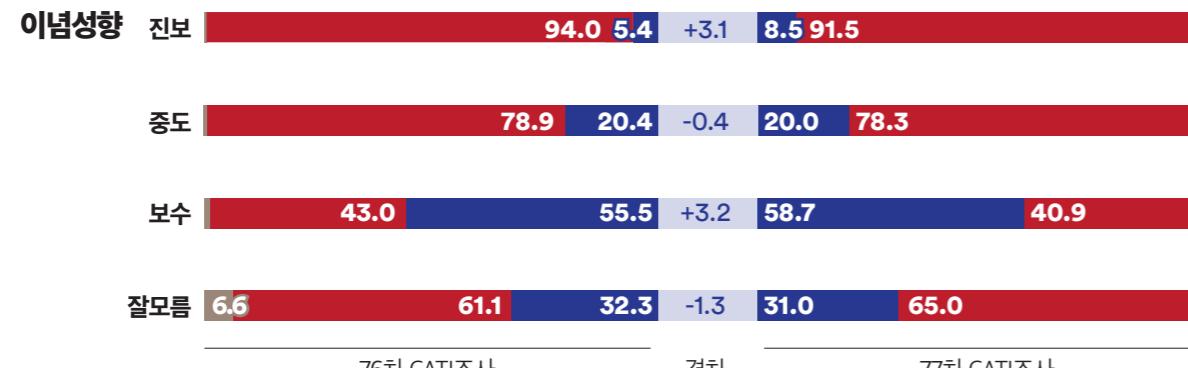
##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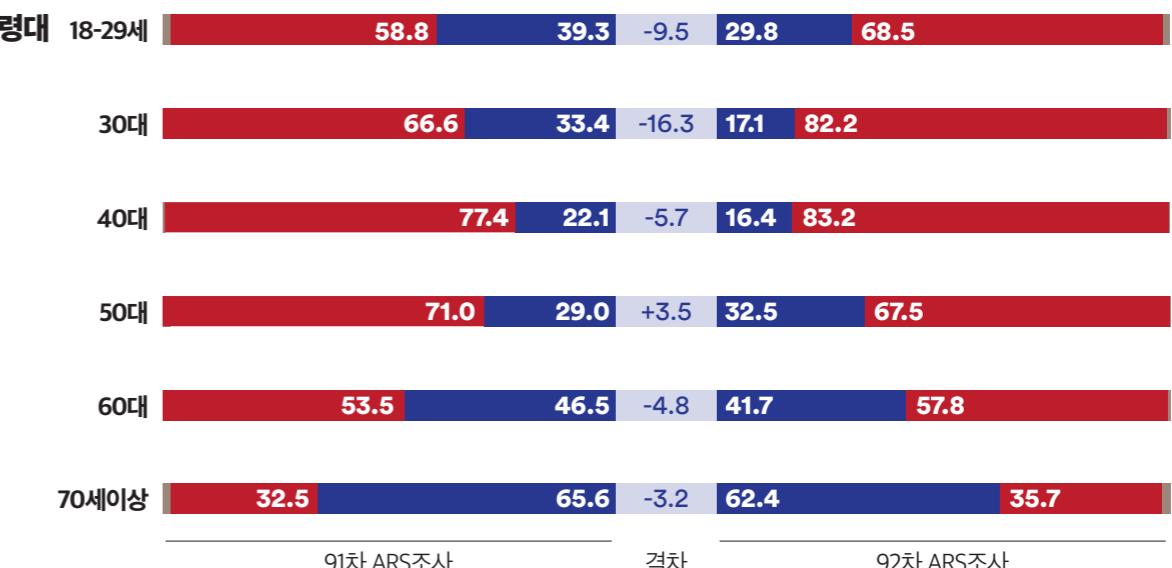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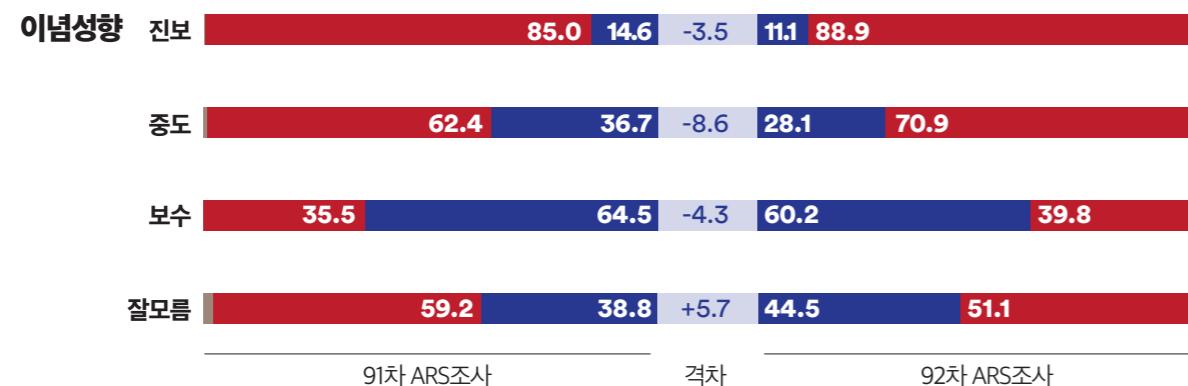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CATI



##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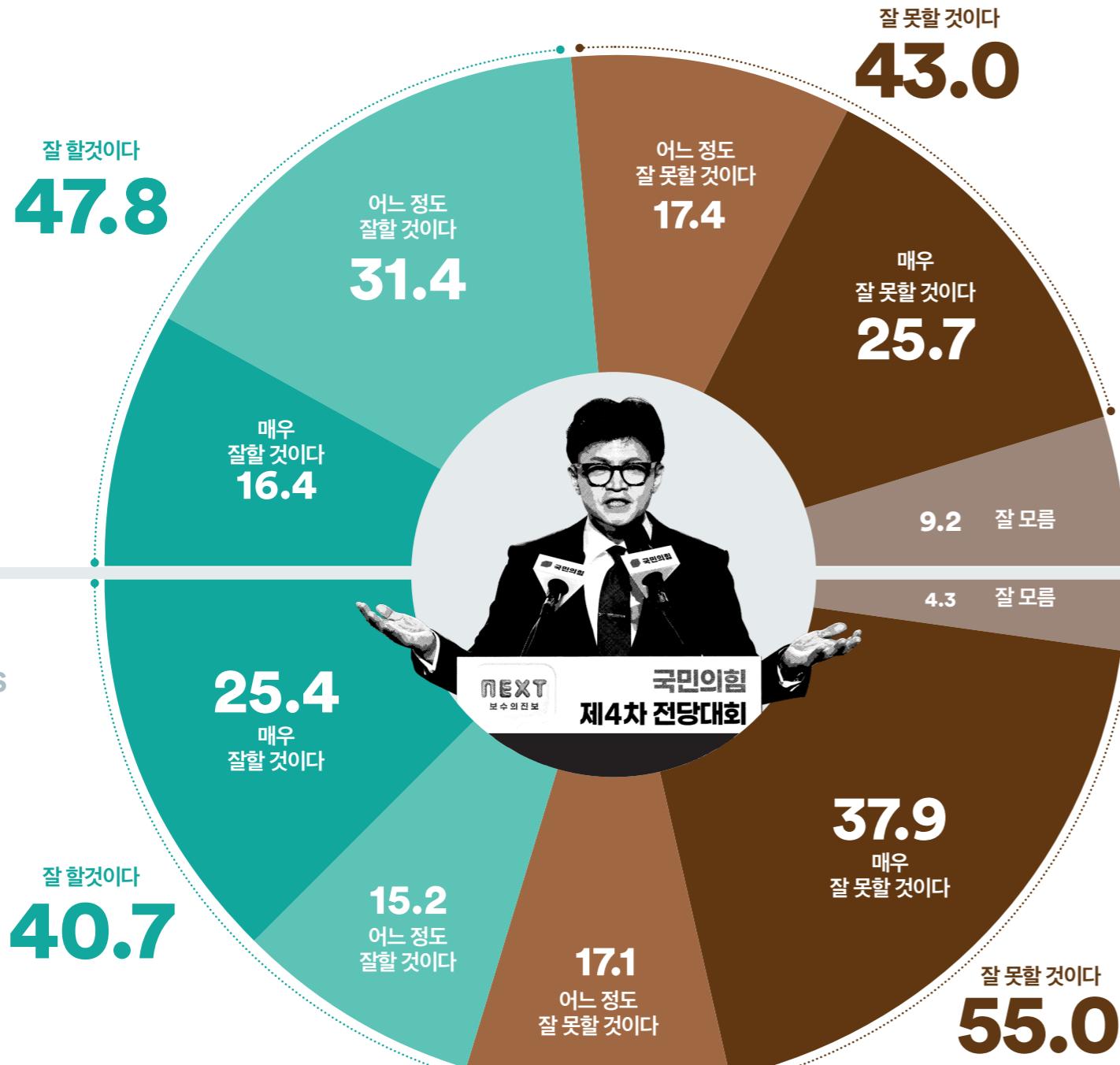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에 대한 기대감

Q.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되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여당을 얼마나 잘 이끌 것이라 기대하십니까?

CATI



CATI 조사는 '잘할 것'이란 응답이 앞서고(4.8%p), ARS 조사는 '잘 못할 것'이란 응답이 우세(14.3%p)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잘 못할 것', 국민의힘 지지층 및 보수층에서는 '잘할 것'이란 응답 우세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계층에서는 '잘할 것'이란 응답이 CATI 12.8%p, ARS 9.3%p 앞섰

중도층은 '잘 못할 것'이란 응답이 CATI 7.3%p, ARS 14.5%p 앞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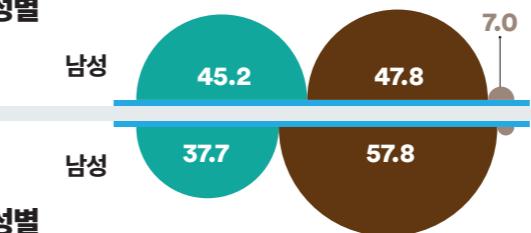
연령

18-29세	45.2	31.6	23.3
18-29 남성	49.0	31.0	20.0
18-29 여성	41.1	32.2	26.7
30대	41.9	47.5	10.6
30 남성	54.4	37.8	7.9
30 여성	28.6	57.9	13.4
40대	38.6	58.0	3.4
50대	38.4	57.2	4.4
60대	55.3	37.8	6.9
70세 이상	71.3	19.9	8.8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25.0	65.7	9.3
국민의힘	86.3	10.5	
조국혁신당	22.9	74.0	
개혁신당	45.0	52.4	
진보당	48.3	51.7	
그외 다른 정당	35.9	55.9	8.2
지지 정당 없음	43.4	30.6	26.0
잘 모름	100.0		

성별  
남성  
남성  
성별  
여성  
여성



권역

서울	39.9	57.8	
인천·경기	37.4	57.8	
대전·충청·세종	40.9	50.1	9.0
광주·전라	24.3	71.4	
대구·경북	58.1	37.8	
부산·울산·경남	47.4	49.9	
강원·제주	42.8	54.2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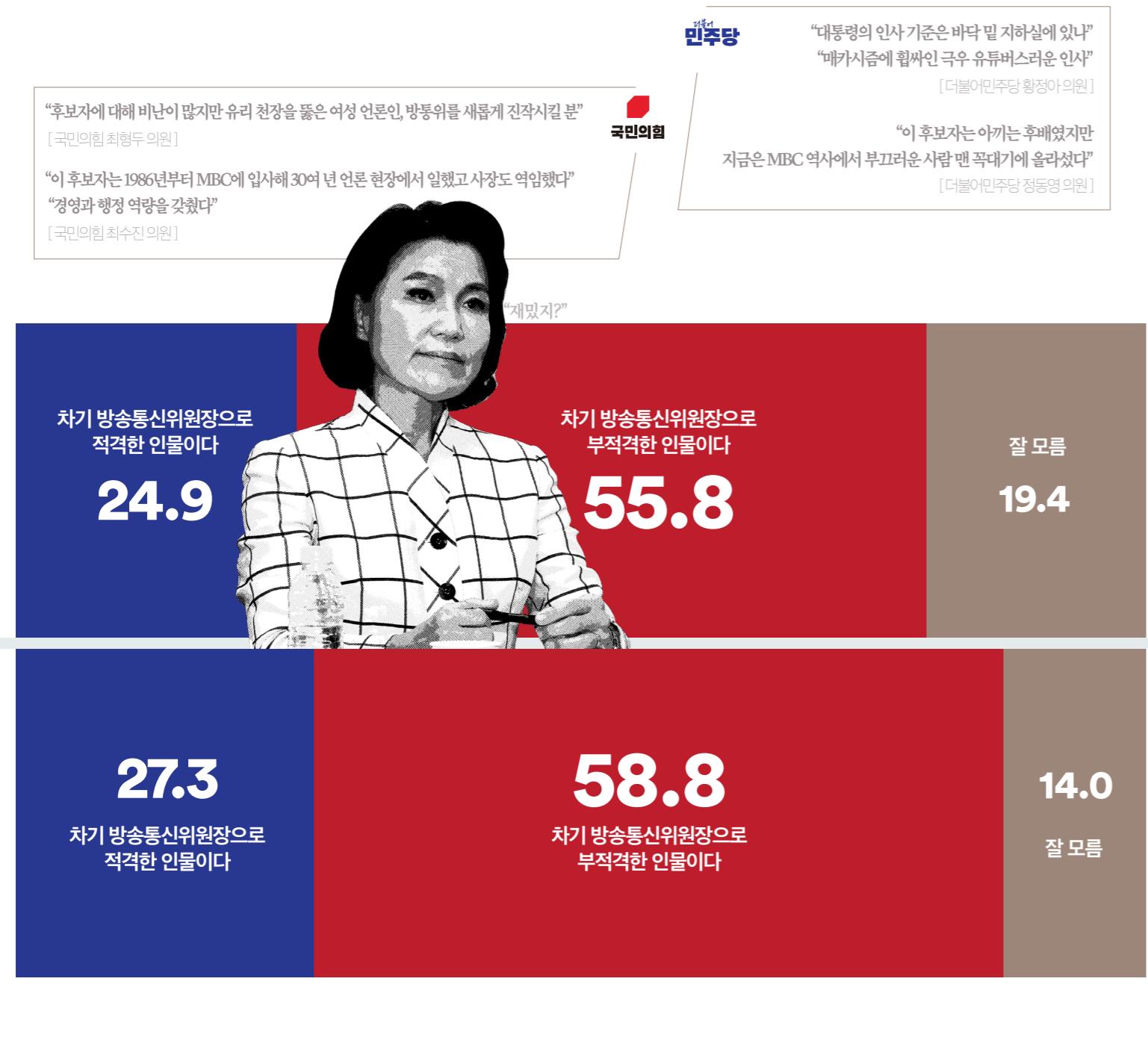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11.5	84.5	
국민의힘	88.5	10.0	
조국혁신당	9.4	83.7	6.9
개혁신당	30.3	60.7	9.0
진보당	48.5	51.5	
그외 다른 정당	18.8	77.4	
지지 정당 없음	43.4	34.1	22.5
잘 모름	48.3	27.3	24.5

■ 잘 할 것이다 ■ 잘 못할 것이다 ■ 잘 모름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적절성

Q.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여당은 “행정역량을 갖춘 후보자”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법인카드 유용 논란 등을 근거로 “부적격 인사”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두 조사의 응답자 절반 이상이 ‘부적격한 인물’이라 답했으며, 응답 간 격차 역시 압도적 차이(CATI 30.9%p, ARS 31.5%p)를 보임  
‘부적격한 인물’이라는 응답은 두 조사의 수도권과 호남권(CATI PK, 강원·제주, ARS 충청 포함)에서 우세  
두 조사의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부적격한 인물’이란 응답 우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 진보층·중도층에서도 ‘부적격한 인물’이란 응답이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 및 보수층에서는 ‘적격한 인물’이란 응답 우세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계층에서는 ‘부적격한 인물’이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응답간 격차: CATI 34.1%p, ARS 22.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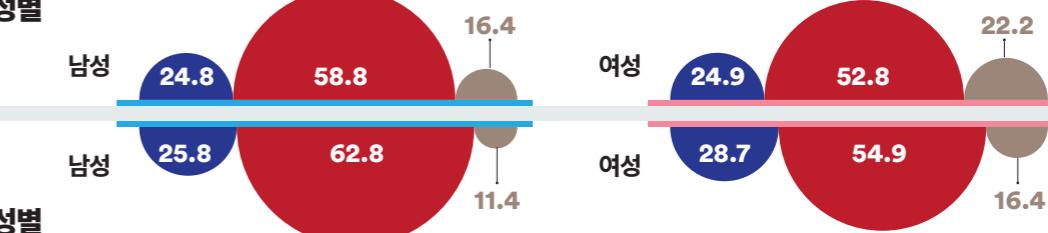
권역

서울	26.1	55.2	18.6
인천·경기	16.8	60.5	22.7
대전·충청·세종	34.7	44.7	20.5
광주·전라	11.6	67.7	20.7
대구·경북	36.9	43.1	19.9
부산·울산·경남	34.5	53.0	12.5
강원·제주	24.0	62.1	13.8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7.0	79.0	14.0
국민의힘	60.8	19.5	19.7
조국혁신당	95.8		
개혁신당	17.1	63.7	19.2
진보당	32.9	34.1	33.0
그외 다른 정당	35.6	54.9	9.5
지지 정당 없음	11.9	46.0	42.1
잘 모름	32.0		68.0

성별



연령

18-29세	24.9	55.3	19.8
30대	15.6	73.7	10.8
40대	15.7	77.9	6.3
50대	28.7	63.2	8.2
60대	36.0	47.5	16.5
70세 이상	43.4	31.7	24.9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1.3		7.0
국민의힘	69.7	11.6	18.8
조국혁신당	91.2		6.3
개혁신당	9.4	73.6	17.1
진보당	25.0	31.4	43.6
그외 다른 정당	24.8	44.1	31.1
지지 정당 없음	12.8	35.5	51.7
잘 모름	49.5	13.3	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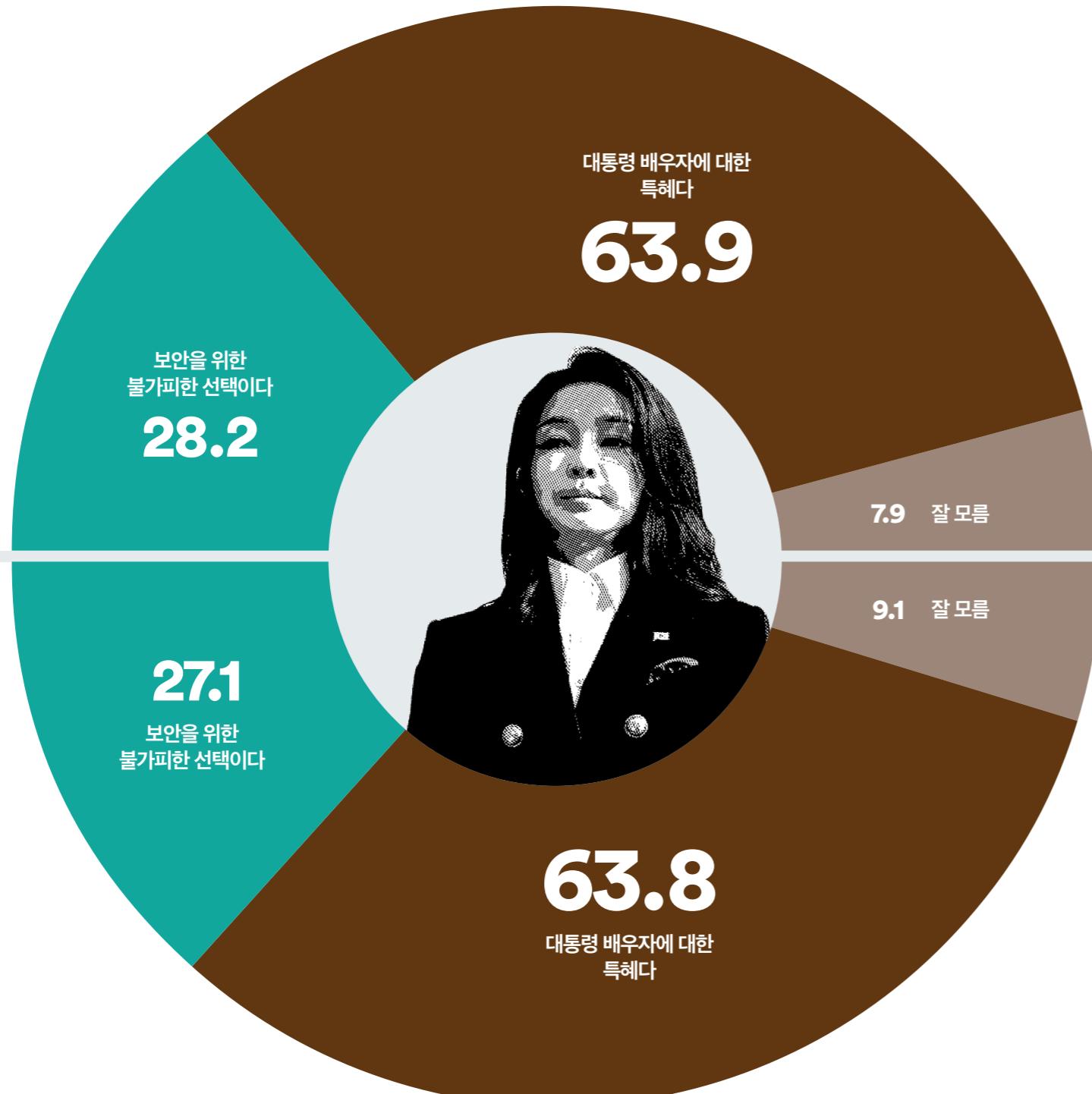
■ 적격한 인물이다 ■ 부적격한 인물이다 ■ 잘 모름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검찰조사

Q.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대통령 배우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담당 검찰관의 핸드폰, 신분증이 제출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두 조사 모두 응답자 10명 중 6명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혜'라고 응답, 압도적 우세를 보임(격차: CATI 35.7%p, ARS 36.7%p)

CATI조사의 TK를 제외한 두 조사의 모든 권역에서 '특혜'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특혜'라는 응답이 앞서고,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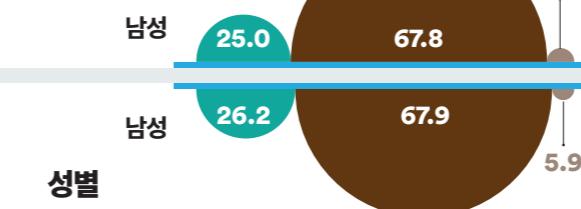
연령

18-29세	22.6	67.5	9.9
30대	17.0	74.9	8.1
40대	19.3	76.2	4.5
50대	25.1	69.6	5.2
60대	41.6	53.8	4.6
70세이상	44.3	38.4	17.3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8.3	86.1	5.5
국민의힘	65.4	25.1	9.5
조국혁신당	94.9		
개혁신당	20.0	71.7	8.3
진보당	15.3	84.7	
그외 다른 정당	27.5	72.5	
자지 정당 없음	22.8	63.9	13.3
잘 모름	66.5		33.5

성별



권역

서울	23.3	66.0	10.7
인천·경기	22.2	67.8	10.0
대전·충청·세종	32.7	60.9	6.4
광주·전라	13.0	82.7	
대구·경북	36.8	47.9	15.4
부산·울산·경남	37.0	55.8	7.2
강원·제주	43.0	51.6	5.5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3.6		
국민의힘	64.8	19.2	16.0
조국혁신당	93.8		
개혁신당	13.8	75.5	10.7
진보당	32.7	44.0	23.3
그외 다른 정당	34.9	54.2	11.0
자지 정당 없음	28.4	59.6	11.9
잘 모름	27.3	13.3	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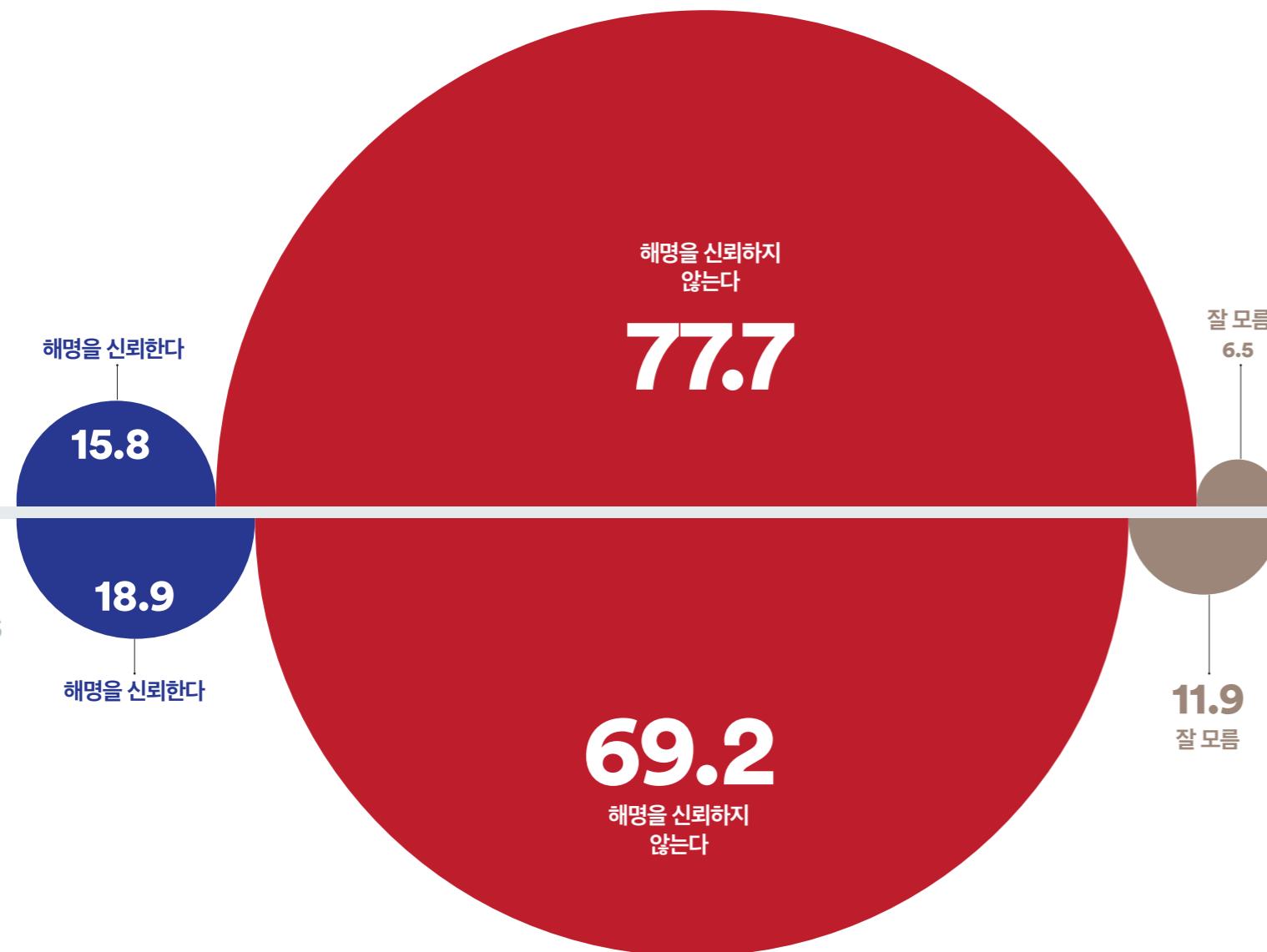
■ 불가피한 선택이다 ■ 특혜 ■ 잘 모름

## 대통령 배우자측의 해명

Q. 최재영 목사가 전달한 선물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측은 샤넬 화장품은 포장만 뜯었고, 양주는 폐기했고, 책은 실수로 버렸으며, 디올백은 반환지시를 행정관이 깜빡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할인매장 등에서 사온 것으로 인식했고, 성의를 거절하기 어려워 받았다”  
 “샤넬화장품은 최목사가 아내가 준비했다는 말에 포장까지 뜯긴 했지만 쓰지 않았다”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이에 포장 그대로 보관하게 된 것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포장을 풀어 보긴 했으나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다시 포장해 갖고 있다”  
 “양주 등 선물들을 폐기한 것으로 안다”  
 [최재영 목사가 전달했던 선물들에 대한 대통령배우자 김간희씨측의 해명발췌]

CATI



두 조사의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 또는 이상은 '대통령 배우자측의 해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층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보수층의 경우 CATI(신뢰 34.6%, 불신 55.7%), ARS(신뢰 32.0%, 불신 49.5%)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우세

## 권역

서울	16.6	77.1	6.3
인천·경기	13.7	80.7	5.6
대전·충청·세종	19.9	69.7	10.5
광주·전라	5.6	89.1	5.3
대구·경북	18.9	71.9	9.3
부산·울산·경남	20.6	73.1	6.3
강원·제주	17.6	82.4	

##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4.0	
국민의힘	41.7	48.1
조국혁신당	99.1	
개혁신당	10.1	81.6
진보당	14.2	85.8
그외 다른 정당	27.5	72.5
지지 정당 없음	83.5	12.1
잘 모름	68.0	32.0

## 연령

18-29세	20.9	70.8	8.3
30대	18.0	78.9	
40대	7.9	86.9	5.2
50대	20.8	69.9	9.3
60대	23.4	57.5	19.2
70세 이상	22.8	49.3	27.9

##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6.0	
국민의힘	45.6	29.7
조국혁신당	89.7	6.7
개혁신당	5.2	87.7
진보당	25.0	75.0
그외 다른 정당	34.9	56.3
지지 정당 없음	12.0	65.0
잘 모름	29.8	13.3

■ 해명을 신뢰한다 ■ 해명을 신뢰하지 않는다 ■ 잘 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407\_05

